

호남포교 히트작 '어린이청소년 생태프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2013년 결산 한마당 개최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정기총회 및 회원한마당' 행사를 열고 올 한 해를 결산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1월 23일 사찰음식전문 수자타 3층에서 올 한해를 결산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150여 명의 불교환경지킴이가 가득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 중점사업으로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지장, 동원사 주지)을 통해 올해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 생태학교, 자파마파(자연따라 마음따라) 1박2일 캠프,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재문화역사탐방 등은 총 600여 학생들이 동참하는 등 지역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중 어린이 생태학교는 5월 25~26일 영암 도갑사, 월출산국립공원에 51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리산 화엄사, 부안 내소사 등에서 실시해 16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불교문화재와 자연을 체험하는



8월 2~4일까지 지리산 화엄사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생태학교, 생태학교에는 16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불교문화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자파마파' 캠프 등 진행 600여 학생 참여 '인기' 청소년 포교 대안 기대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올 해에만 전체 6회가 진행된 '자파마파 1박2일'은 김제 금산사, 남원 실상사, 순천 송광사, 완도 신흥사, 진도 쌍계사 등에서 실시해 전체 300명의 초등학생을 참여했

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찰체험, 문화재탐방, 공동체 놀이 등이 진행돼 아이들에게 불교와 역사, 공동체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불교환경연대의 이러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향후 다른 불교단체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악한 호남 청소년계층의 포교상황에 비해 보면 불교단체의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은 호남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사 석탑 100년만에 복원 착수

26일 착수식 개최, 2016년 8월 경 복원 완료예정



현존하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큰 미륵사지 석탑이 11월 26일 11년간의 해체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복원 착수식에서 육중한 무게의 심초석을 제자리에 맞추는 장면.

전라북도과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11월 26일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 현장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 착수식 및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복원 착수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성우 스님, 승림사 지광 스

님, 관음사 덕림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박성일 전북행정부지사, 최충덕 문화재청 정책국장, 채병선 문화재 연구소 실장, 이한수 익산 시장, 이백희 익산불교신도회장 등 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덕사 만공 대선사 열반 67주기 다례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주지 지은)는 11월 22일 정혜사 능인선원 등에서 '만공대선사 열반 67주기 다례제 및 만공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다례제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주지 지은 스님, 우송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만공 스님은 한암 스님과 더불어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승"이라며 "만공 선사님의 '세계일화(世界一花)' 정신을 이어받아 자리타의 보살행으로 나와 남이 구별없는 하나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만공기념회 이사장 웅산 스님은



이날 만공기념관에서 수덕사 학인 스님 4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만공기념회는 만공 스님의 탄신다례와 열반다례에 맞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학인스님들에게 만공장학금을 수여해 학업증진을 후원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광주전남인드라마, 인권강좌 마련

지역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돼 화제다. 광주전남인드라마생명공동체(대표 이종표, 전남대 교수)는 11월 29일 광주 선덕사에서 '밤살마을 인권씨앗뿌리기' 마지막 강연을 개최했다.

10월부터 2달간 8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씨앗뿌리기'의 마지막 강연에는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들의 인권 현황을 발표했으며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최완옥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한남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김규환 어린이집지 '고래가 그랬어'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이소영 간사는 "이번 강좌는 인권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기초작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인권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사회복지관, '위풍당당 장수나눔잔치'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은 11월 26일 고창군 관내 11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위풍당당! 장수나눔잔치'를 진행했다.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은 11월 26일 고창군 관내 11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위풍당당! 장수나눔잔치'를 진행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준비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문화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인사가 진행됐으며, 모범경로당 시상으로는 대성동 여자경로당(고창읍), 동부리여자경로당(고창읍), 고수남여자경로당(고수면)이 선정

됐다. 도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선양을 위하여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복지관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러진 문화공연에서는 '신림가평초등학교' 아동들의 다양한 맨스 축하공연과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들은 연신 어깨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이 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서원복지관, 2013 서원축제 개최



서원노인복지관이 개최한 축제에는 1500여 지역민들이 모여 함께 한지등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이 지역주민, 어르신,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를 열었다. 서원복지관은 11월 20~21일 이틀간 '서원인, 오색빛에 반하다!'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서원노인복지관의 모습을 통해 복지관 구성원들의 화합의 장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물하고 나아가 발전적인 복지관의 모습으로 정착시켜 나가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축제기간동안 연인원 1500여 명이 동참해 함께 축제를 즐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과 색의 주제에 맞게 풍선과 오색등으로 치유가 되는 색, 빛을 품은 사람, 빛으로 밝힌 길을 주유테마로 복지관 전체가 장식된 이번 축제는 한지등만들기, 손수건 프린팅, 오색빛깔 소원씨기, 오색팔찌만들기의 프로그램과 사진전, 서예작품전, 복지관 어르신들의 작품발표회 등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성우 스님은 "어르신들의 큰 잔치 한마당이 성황을 이루기 바라며 서원복지관의 축제가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p>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끼리개, 맨드라미사계</p>	<p>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것은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p>	<p>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p>	<p>4 수직으로 나열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끼리개를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p>
<p>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활꼴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p>	<p>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p>	<p>7 마강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맨드라미개 끼워서 다시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p>	<p>8 이때 맨드라미개와 마강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p>
<p>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기법개 매듭을 만듭니다.</p>	<p>10 다시 매듭을 3번 활꼴 조이면 됩니다.</p>	<p>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기법개 늘려줍니다.</p>	<p>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도출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p>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